

‘단단한 마운드 · 빈틈없는 타선’ 김경문호, 출격 준비완료

‘중남미 강호’ 푸에르토리코와 2차례 평가전서 모두 승리

오는 6일 호주와 프리미어12 C조 조별리그 1차전 시작

김경문 감독이 이끄는 한국 야구 대표팀이 중남미의 강호 푸에르토리코와의 2차례 평가전을 모두 승리하며 2019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에 대한 전망을 밝혔다.

한국은 지난 1일 푸에르토리코와의 첫 경기에서 4-0, 2일 2차전에서 5-0으로 승리했다. 평가전을 마친 한국은 오는 6일 호주와의 프리미어12 C조 조별리그 1차전을 시작으로 대회에 돌입한다.

지난 달 11일 훈련을 시작한 대표팀은 일부 선수들의 장기간 실전 경험 공백과 KBO리그 포스트시즌으로 인한 체력 문제 등의 우려도 있었다. 그러나 대표팀은 2차례 평가전에서 모두 완승을 거두면서 기대감을 높였다.

우선 대표팀은 2차례 평가전에

서 마운드가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선발, 불펜 할 것 없이 등판한 선수들은 자기 역할을 해냈다.

에이스 양현종(KIA)은 정규시즌 후 한 달이 넘는 실전 공백에도 1일 푸에르토리코를 상대로 선발 등판해 2이닝 무피안타 무사사구 4탈삼진으로 완벽한 피칭을 보였다. 총 6명의 타자를 상대해 한 명도 출루시키지 않고 아웃 카운트 6개를 잡아내는 퍼펙트 피칭이었다.

양현종과 함께 대표팀 ‘원투펀치’를 구축하고 있는 김광현(SK)도 푸에르토리코전에서 좋은 컨디션을 보였다. 김광현은 1일 양현종에 이어 팀의 2번째 투수로 등판, 2이닝 1피안타 1볼넷 3탈삼진을 기록했다.

김광현은 150km가 넘는 강속구로 푸에르토리코 타선을 억박질렀

다. 초반 제구가 되지 않아 불펜을 내주기도 했지만 변화구로 상대 타자들의 타이밍을 뺏으며 삼진 3개를 잡아냈다.

차우찬(LG)도 1일 평가전에서 2이닝 4피안타 2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했다. 경기 중 안타를 맞고 코너에 몰리기도 했지만 뛰어난 위기 관리 능력을 보이며 무실점으로 등판을 마쳤다.

2차전에 선발로 나선 언더핸드 박종훈(SK)은 선발 자원 중 가장 긴 3이닝을 던졌다. 박종훈은 2피안타 1볼넷 1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했다. 국제대회에서 언더핸드 투수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중남미 국가들을 상대로 위협적인 카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불펜도 빈틈이 없었다. 1차전에서는 고우석(LG), 원종현(NC),

이영하(두산) 등이 차례로 나서 푸에르토리코 타선을 봉쇄했다. 이어 2차전에서는 6명의 불펜 투수가 등판해 6이닝 동안 안타 1개만을 내줬다. 포스트시즌에서 맹활약했던 조상우(키움)도 마지막에 등판해 3명의 타자를 모두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타선은 2경기에서 총 17안타를 때리며 9점을 뽑아냈다. 중심타선과 하위타선에서 안타와 타점이 나온 것은 대표팀 타선의 깊이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1차전에서는 4번 지명타자로 출전한 김재환(두산)이 시원한 투런포를 때려냈다. 한국시리즈에서 홈런 없이 1타점에 그쳤던 김재환이었기에 이 홈런은 더욱 반가웠다. 성인 대표팀에 처음 합류한 강백호(KT)도 펜스 상단에 맞는 큰짜잔 1타점 2루타로 대표팀 첫 안타를 신고했다.

하위타선의 활약도 눈길을 끌었다. 2차전에 9번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한 민병헌(롯데)은 3루수 2안타 1홈런 2타점으로 활약했다.



2일 오후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19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대한민국과 푸에르토리코의 2차 평가전에서 5-0으로 승리한 야구대표팀 선수들이 마운드에 모여 하이파이브를 나누고 있다.

민병헌은 0-0이던 3회초 무사 1, 2루 찬스에서 1타점 적시타로 결승타를 기록했다. 이후 5회초에는 솔로포까지 쏘아 올리며 절정의 타격감을 과시했다. 1차전에서 9번타자로 나선 김

상수(삼성)도 3타수 3안타 1득점으로 100% 출루를 기록했다. 상위타선으로 찬스를 연결해야 하는 위치에서 선수들이 좋은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는 점이 긍정적이었다

임은수, CS 아시안 오픈 트로피 쇼트프로그램서 1위



한국 여자골퍼 간판 임은수(신현고)가 챌린저 시리즈(CS) 대회 쇼트프로그램에서 1위에 올랐다.

임은수는 지난 2일 중국 동판에서 열린 국제방상경기연맹(ISU) 피겨 챌린저 시리즈 아시아 오픈 트로피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서 기술점수(TES) 35.80점, 구성점수(PCS) 31.04점

을 기록했다. 총점 66.84점을 받은 임은수는 16명의 출전 선수 중 1위에 올랐다.

임은수는 오는 22일 일본에서 열리는 ISU 그랑프리 6차 대회 NHK 트로피 출전을 앞두고 기량점검 차 챌린저 시리즈인 이 대회에 출전했다.

이날 임은수는 깔끔한 연기를

펼쳤다.

첫 번째 점프인 트리플 러츠-더블 토루프 콤비네이션을 실수 없이 뛰었고 플라잉 카멜스핀을 최고 등급인 레벨4로 처리했다.

이어 스텝 시퀀스를 소화한 임은수는 트리플 플립, 더블 악셀을 연기하며 점프 과제를 마쳤다.

레이백 스피드와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점프는 모두 레벨4로 처리했다.

가브리엘라 이초(미국)가 65.30점을 받아 2위에 올랐다. 김하늘(수리고)은 60.04점으로 3위를 차지했다.

임은수는 3일 열리는 프리스케이트에 출전해 우승을 노린다. 남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서는 이시형(고려대)이 71.94점을 받아 3위에 올랐다.

변세중(경희대)은 70.91점으로 5위, 차영현(화정고)은 64.64점으로 7위에 자리했다.

뉴스

박희영 · 강혜지 등 6명, LPGA투어 2020시즌 시드 확보

중국 허무니, 합계 21언더파 551타로 1위 차지

박희영(32) 등 6명의 한국 선수가 2020시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출전 자격을 얻었다.

박희영은 3일(한국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파인허스트 9번 코스(파72·6643야드)에서 열린 LPGA 웰리파이먼트 토너먼트 Q-시리즈 대회 마지막 날 8라운드에서 2언더파 70타를 쳤다.

8라운드 합계 18언더파 554타를 작성한 박희영은 전체 2위에 올라 내년 시즌 시드를 확보했다. 이 대회 상위 45명은 2020시즌



박희영

LPGA 투어 14번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정규투어 출전권을 얻는다.

LPGA투어 통산 2승의 박희영은 올해 16개 대회에 출전했으나 상급 순위 110위(10만3327달러)에 그쳤다.

상급 100위까지 주어지는 다음 시즌 풀 시드를 확보하지 못한 박

희영은 웰리파이먼트 토너먼트를 치러 출전권을 확보했다.

박희영을 비롯해 이 대회에 출전한 한국 국적 선수 7명 중 6명이 상위 45위에 들며 내년 시즌 시드를 얻게 됐다.

강혜지(29)가 최종합계 10언더파 562타로 전체 4위에 올랐고 전지원(22)은 1언더파 571타로 공동 16위에 자리했다.

곽민서(29)가 공동 24위(1오버파 573타), 손유정(18)이 공동 30위(3오버파 575타)에 랭크됐다. 전영인(19)은 이날 4타를 줄여 공동 41위(5오버파 577타)로 극적으로 시드를 따냈다.

반면, 아마추어 박금강(18)은 6타를 잃고 공동 51위(9오버파 581타)로 탈락했다.

이번 대회에선 중국의 허무니가 합계 21언더파 551타로 1위를 차지했다. 재미교포 노예림은 15언더파 557타, 3위로 마쳐 LPGA 투어 시드를 확보했다.

뉴스

명품하는 행복하군만

화순군
HWASUN-GUN

임대정원림

연둔숲정미

김삿갓동산

오지호 기념관

조광조유배지

고인돌유적지

BUS TOUR

설림화순 버스투어

2019. 3. 23(토)~11. 24(일) 매주 수, 토, 일요일

코스

동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화순적벽→임대정원림→연둔숲정미→김삿갓동산
→오지호 기념관 및 생가→화순읍

서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운주사→조광조유배지→고인돌유적지→화순적벽 →화순읍

예약

설림화순 버스투어 홈페이지 <http://tour.hwasun.go.kr>

현지탐승

이서커뮤니티센터, 미 예약 방문객 현장 선착순(1대)